

[2000 OMC 주제강의]

리더십의 전환

멜 로렌츠 목사 / 페이지수: 3

오늘 리더십의 전환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지도자가 계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지도력을 발휘하실 분도 계십니다.

한국 교회의 세계를 향한 리더십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리더십의 전환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 리더십들의 전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엠부룩 교회에서 20년 동안 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출석했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부교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브리스코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년이 지난 후 그 목사님의 자리에 제가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력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브리스코 목사님은 70세가 되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목사님이 70세가 되고 엠부룩 교회를 담임한지 30년이 됩니다. 목사님이 항상 믿고 계신 곳은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엠부룩 교회의 리더십전환

그래서 6개월 전 쯤 14명의 장로님들을 모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70세가 되면 담임목사직을 갖지 않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만약 교회가 원하면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그들은 제게 담임 목사 직분에 대한 제의와 브리스코 목사님께 직분을 바꿔서 전체 사역목사를 제안했습니다. 브리스코 목사님이 리더십을 갖지는 않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도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코 목사님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과 20여 목사님들이 모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나누고 어떠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었던 브리스코 목사님과 제가 돌아온 후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같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은 같은 입장을 가지게 되었지만 교인 전체에게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잘못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주 후 우리는 1백 20명의 집사님들을 소집하고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브리스코 목사님은 본인의 의도를 설명하였고 장로님께서 교인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코 목사님은 겸손하고 아주 분명한 어조로 교회가 왜 젊은 지도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어지는 리더십

목사님의 말씀이 끝난 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코 목사님이 사역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했는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교인들의 얼굴에서 어떤 신뢰감과 안심과 확신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석 부목사께서 올라오셔서 멜 목사를 담임목사님으로 초청하는 것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딕 목사님과 아주 친한 친구이고 20년 동안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책임을 같이 분담도 해주고 서로 돕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딕 수석부목님이 말씀을 마쳤을 때에 교인들은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그 부목사님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 시간 동안 교인들과 가졌던 그 예배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교인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질문이나 의문이나 의구심이 있다면 모든 교인들이 이메일로 자기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과 절차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 우리 교인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제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리더십의 전환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성경은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함에 있어서 그가 어떤 의지적인 힘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지도력을 계승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에게도 은사를 주실 것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도력이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리더십전환의 12가지 원칙

리더십의 전환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12가지의 리더십 전환의 원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그 어떤 은사는 앞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그 지도력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리더십은 가치관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치관이 공유되면 리더십간에 연속성이 생깁니다. 지도자들과 스타일이나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치관이 공유가 되었다면 그 리더십의 전환이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주 넓은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조직이나 지도자들이 자기의 목적과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신뢰감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 단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그 지도력을 공유하고 함께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변화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를 잃는다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쉬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라고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진정한 리더십의 전환은 모든 권한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새로운 리더가 갖는 잠재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완성된 지도력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도 초기에는 아주 초보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조직이든지 새 지도자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 번째, 우리는 넓은 생각과 큰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변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좁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큰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한 번째, 차세대 지도자는 시련을 소화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여러 상황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을 요구합니다.

열두 번째, 차세대 리더십은 훈련을 통해 육성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저도 그런 기회의 수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며 배웠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배웠던 것과 같고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웠던 것과 같습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